통도사 개산대재, 천년 법맥 담은 문화 향연

9월 29일~10월 29일, 개산 1380주년 행사 다채

영고재 · 법요식, 10월 29일 개최
영축삼보 이운 · 괘불헌공 장엄도
나눔 · 참여 장도 풍성하게 열려
청소년을 위한 전시 · 사생대회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 1380주년을 맞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천년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현대불교 자료 사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개산 1380주년을 맞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천년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개산대재(開山大齋)를 봉행한다. 개산대재는 신라 자장 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 와 창건한 통도사의 법맥을 기리고, 1380년의 역사와 정신을 현대에 잇는 법석이다.

올해는 '역사와 문화의 장'과 '나눔과 참여의 장'으로 나눠 전통 의례와 불교문화, 청소년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산사와 지역,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개산대재의 하이라이트는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이다. 10월 29일 오전 9시 개산조당에서 자장 율사의 진영을 모시고 덕을 기리는 영고재가 먼저 봉행되고, 이어 오전 10시 30분 설법전에서 개산대재 법요식이 장엄하게 거행된다. 통도사 창건조 자장 율사의 뜻을 기리는 이 법석에는 종단의 주요 스님과 사부대중, 지역민이 참여해 개산의 의미와 법맥의 가치를 되새길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자장 율사 가사배견'이 진행된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자장 율사의 가사를 직접 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10월 26일에는 불교 전통 의식인 '영축삼보 이운'과 '괘불헌공'이 연이어 열린다. 오전 9시 30분 부도원 앞에서 봉행되는 '영축삼보 이운'은 법당 밖에 모셔져 있던 괘불을 대법회장으로 옮기는 의식으로, 수백 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장엄한 행렬을 이루며 걸음을 옮긴다.

오전 10시에는 괘불대 앞에서 '괘불헌공'이 진행된다. 이는 자장 율사의 정신을 계승하며 불법의 융성을 기원하는 의미다.

10월 25일 오후 2시, 부도원에서는 '부도 헌다례'가 열린다. 이는 통도사의 역대 고승과 선지식의 덕을 기리며 스님과 신도들이 차를 올리는 의식이다.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성보박물관 1층 괘불전에서는 1767년에 제작된 탱화(보물)가 특별 공개된다. 괘불은 평소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만, 개산대재 기간 동안 신도와 관람객이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특별 전시된다.

'나눔과 참여의 장'에서는 통도사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행사가 이어진다.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해장보각 앞에서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만발공양'이 마련돼, 통도사와 불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 공양을 지역 어르신들과 나눈다. 이어 오후 1시에는 삼성반월교 옆 무대에서 '영축문화공연'이 열려,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개산대재 기간 동안에는 청소년과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와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10월 3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산문(山門)의 빛, 마음의 정원에서 인연을 만나다'를 주제로 미디어아트 전시가 진행된다.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제4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가 경내 일원에서 개최된다.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삼성반월교 옆 야외무대에서 '제2회 통도사 합창제'가 열린다.

통도사는 "개산 1380주년을 맞아 자장 율사의 창건 정신을 기리는 법석을 마련했다"며 "천년 고찰의 역사와 정신이 오늘의 삶 속에서 새롭게 꽃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남북 화해, 마음부터"…부산서 평화순례

민추본 9월 27~28일, 제5차 평화통일도량 순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 이하 민추본)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부산 일원에서 '제5차 평화통일도량 순례'를 봉행했다.〈사진〉 순례에는 덕유 스님(민추본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회원 및 도반 30여 명이 동참해 사찰과 역사 현장을 순례하며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모았다.



첫 순례지인 원오사(주지 정관 스님, 민추본 부산·경남본부 본부장)에서는 솔바람 명상길 포행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정관 스님은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 쓰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남북의 갈등도 마찬가지"라며 "적대감을 버리고 이해와 기다림, 진정성을 꾸준히 쌓아간다면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례단은 이어 해동용궁사와 내원정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공원, 문수사도 방문해 남북 교류 재개와 한반도 평화에 마음을 모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흥륜사, 이차돈 성사 추모다례

9월 26일, 헌향 · 헌다 · 음악회



경주 흥륜사(주지 보광 스님)는 9월 26일 경내 선방 특설무대에서 '제1498주기 이차돈 성사 추모다례 및 음악회'를 봉행했다.〈사진〉

보광 스님은 "이차돈 성사가 시대의 변화를 이끌었듯 흥륜사도 담장을 낮추고 열린 도량으로 나아가겠다"며 "반바지 차림이나 반려동물 동반 등 다양한 문화를 포용해 누구나 부담 없이 도량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님 법은 변하지 않지만, 문화는 시대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며 향후 도량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이차돈 성사는 신라가 불법을 받아들이지 않던 시절, 자신의 목숨을 바쳐 법등을 밝힌 분"이라며 "그 순교의 뜻이 오늘날까지 흥륜사에 면면히 이어져 한국 불교의 뿌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팔관회 명상걷기…3000명 함께한 '수행의 걸음'

9월 27일 팔관회 본행사 앞두고 명상 · 걷기 · 공연 어우러진 축제



'2025 팔관회'의 시작을 알리는 명상걷기대회가 9월 27일 북항친수공원에서 열려 3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사진=이도경 부산지사장

선선한 가을밤, '2025 팔관회'의 시작을 알리는 명상걷기대회가 9월 27일 북항친수공원에서 열려 3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팔관회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불교계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걷기대회에 앞서 무대에서는 홍법사 총무국장 현수 스님의 안내로 짧은 명상 시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집중한 뒤, 북항의 밤공기를 느끼며 산책로를 따라 걷기 명상을 이어갔다.

바닷바람과 야경이 어우러진 길 위에서 시민들은 차분히 걸음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을 정돈했다. 한 참가자는 "걷는 동안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걷기 코스 중간에는 팔재계의 현대적 실천을 안내하는 순서가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짧지만 깊은 성찰의 여운을 남겼다.

걷기대회가 끝난 뒤 이어진 공연은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정오 스님은 회향사에서 "지난해는 우천으로 걷지 못했지만 올해는 새로 단장된 공원을 함께 걸으며 명상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오 스님은 "〈화엄경〉에는 남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기뻐할 때 그 복과 행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분이 함께 걸으며 건강과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팔관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된다. 첫째 날에는 선재동자 수계법회와 마정수기 법회, 둘째 날에는 호국기원법회와 전통 백희가무 공연이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호국영령위령재와 팔관재계 수계법회가 엄숙하게 봉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외국인 유학생에 불교 문화 알려

9월 28일, 사찰음식 · 민화 체험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9월 28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템플레킹(Temple+Trekking)' 팸투어를 진행했다.〈사진〉 팸투어는 관광·문화 관계자나 외국인 등을 초청해 지역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해와 홍보 효과를 높이는 초청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관광공사와 협력해 마련됐으며, 4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선문화관에서 사찰음식과 민화 채색 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경험했다.

범어사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번 팸투어를 통해 한국불교와 지역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